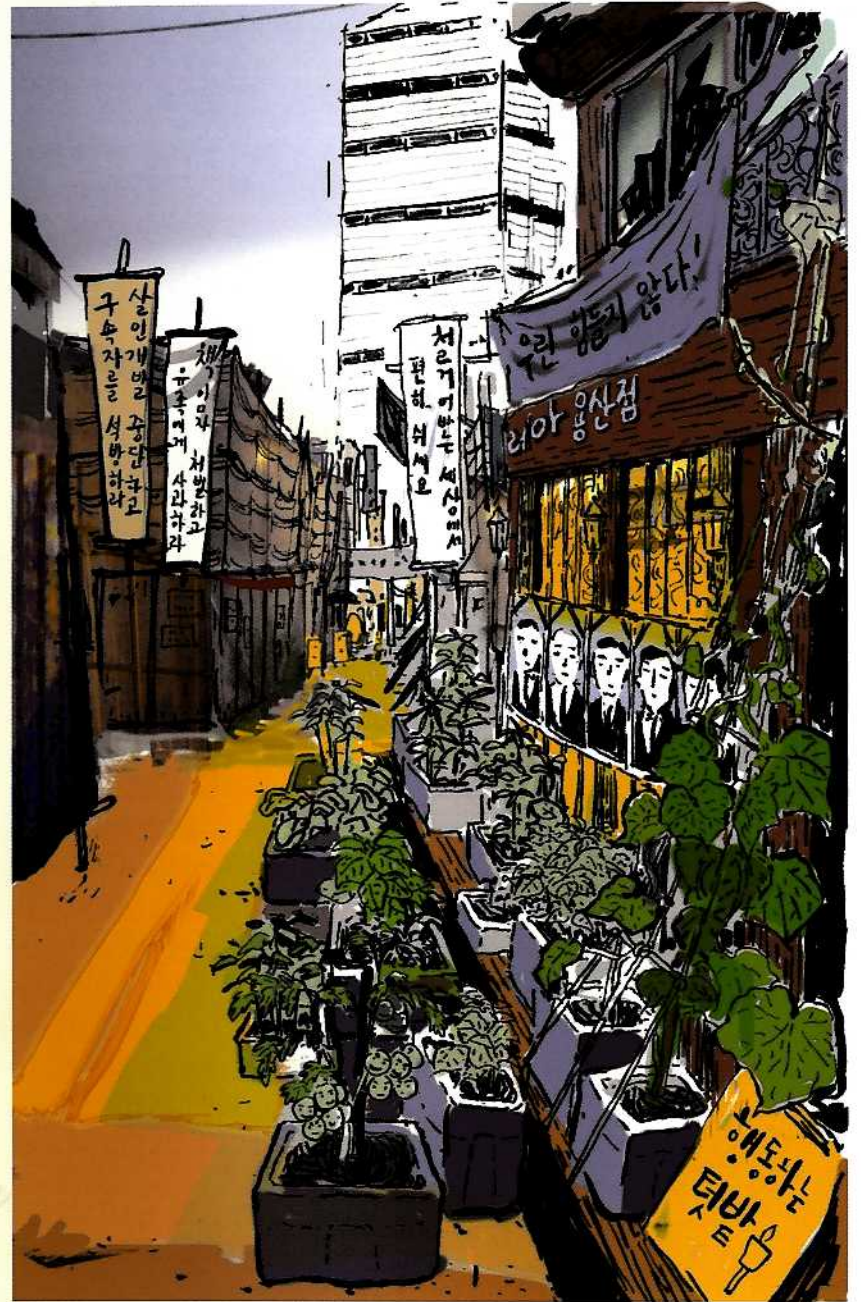




한겨레

국정원이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패킷감청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수사필요성을 넘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적절한 제재와 감시가 필요하다.



민주가족 88호(2009.9)

- 2 나는 민가협 엄마라해요 | 임기란
국민의 아픔, 집회표현의 자유는 개 뼈다귀인가
- 4 봉은사 치유모임 지난 1년간을 되돌아 보며 | 진범수
- 7 추모사 | 임기란
이 글을 삼가 김대중 전대통령의 영전에 드립니다
- 8 이 사건을 말한다
범민련 실무자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 12 인권이눈! 오병일
표현의 자유침해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위헌이다
- 14 사진으로 본 현장
김성한 어머니
- 15 목요 주장 | 한아름
대학생들이 마구 연행되고 있습니다.
- 16 현장 | 이영
쌍용자동차 앞, 노동자만 피해를 입는 모순의 현장
- 18 병역거부소견서 | 하동기
예수의 걸음을 따라
- 20 인권소식
- 22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4 활동일지
- 27 이런일 저런일

국민의 아픔, 집회 표현의 자유는 개 뼈다귀인가

임기란_운영위원



올해 광복절에 157만명을 특별사면했다. 그러나 죄 없이 갇혀있는 양심수는 한 사람도 해당되지 않았다. 120여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양심수는 없는 사람 취급이다. 일심회사건의 이정훈, 이진강 씨는 만기가 두 달도 안 남았는데도 누락되었다. 사람답게 살려고 기본권을 외친 노동자, 철거민, 양심에따른병역거부 젊은이, 영똥한 국가보안법으로 엮은 실천연대 활동가들, 범민련 이규재 선생님과 젊은이들... 120여명이 자유를 잃고 옥살이에 고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25년을 석방운동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해온 민가협 어머니로서는 괴씸하고 유감스러웠다. 아니 분통이 터졌다. 입으로는 소통하자, 시민단체와 의논도 하고 함께 일 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은 몽땅 헛소리인가.

한동안 잃어버린 십년이라고 좌과, 좌빨하는 소리가 요란했었다. 작년 일년내내 광우병 소고기 촛불을 잡아가두는다고 바빴을 그들이 나중에는 유모차 얘기 엄마 집까지 들이닥쳐 공안바람을 피웠다. 그러나 요사이 판사의 무죄 판결을 종종 볼 수있다. 검찰은 MBC 피디수첩을 죽치더니 급기야 미국 소고기 장사꾼들이 며칠전에 피디수첩과 여배우를 고소했다고 한다. 국민이 불안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것을 어찌 MBC와 여배우에게 죄를 묻는단 말인가. 세 살 넘는 소고기를 뼈채 수입하겠다고 부시에게 경솔하게 약속한 이명박의 죄는 어디에 있는가.

용산4구 철거민들의 참사는 지금 7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해결기미도 없다. 구속된 철거민들 재판도 중단되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모르쇠로 힘없는 약자들이 제풀에 쓰러질거라고 먼 산 볼 보듯 한다. 한 술 더 떠서 용산참사에 연대하는 종교인, 변호사, 인권단체들을 상습적으로 시위를 하며 유가족을 선동하고 있다고 으르렁 거린다. 이렇게 비참하고 슬픈 일이 있을까. 일곱달째 영안실에 얼어있는 이분들의 유가족은 그 한이 하늘을 찌르고 하루하루 고통속에 지낸다. 철저히 모른 척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좋은 말만 늘어놓으니 진정성이 없는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사재를 털어서 장학금을 준대해도 우리에게 감동이 전달되지 않고, 운하는 취소하고 4대강을 살리다고 해도 의심스럽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생각과 행동에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이 투철한 정치인이여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법과 원칙을 부르짖던 이대통령의 뒷두리는 고작 이런 것인가. 수십년 고생하여 만들어가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부자들만 짚시는 세상이 되어 버렸는가. MB정부 2년이 채 안되어 남북 소통은 흔적없이 형클어지고, 민생고는 아랑곳 않고 선부른 정책 남발에 국고는 거덜났다. 뜻있는 국민들의 시국선언에 반응은 커녕 전교조만 탄압한다. 권력의 오만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선생님들을 중징계를 남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개 뼈다귀인가. 국정원, 경찰, 검찰, 기무사, 청와대 이대통령의 나팔수 주구노릇에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듯 바른말하는 정의로운 시민을 붙잡아 가두기에 바쁘다. 국회가 다시 열린다는데 이정희 의원을 쥐잡듯 끌어내고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던 장면이 눈에 생생하다.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과 귀를 막으려는 난투이다. 세상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의사당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는지 개탄한다.

이북이 고향인 우리 부부는 80노령에도 조국의 통일을 간절히 염원한다. 수십년 쌓아서 이룩한 민주화 운동, 평화로운 남북통일 운동은 이명박대통령은 집권 2년도 안되어 몽개버렸다. 교만한 자존심과 무지한 우월감은 사대 사상이 더욱 커져서 특하면 미국으로 뛰어가고 한반도 남북에 소통은 더욱 멀어진다. 그러나 현대 그룹 회장장이 북에서 돌아와서 숨통퉁이는 남북관계의 복원을 기대할까. 옥중에 고생하시는 양심수 여러분 더위에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민주가족을 만들지 못하여서 죄송합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표·지·이·아·기

용산에서

뿌리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땅
텃밭같은 인생,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거리가 되어버린
용산 한강로2가.

표지그림_유승희 편집디자인_그래픽디자인

봉은사 치유모임의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며

진 범 수_용인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



2008년 6월 정혜신 선생님의 마인드 프리즘 연구소에 있는 작은 정원에 서로를 알지 못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민가협을 통해 모인 4명의 정신과 의사, 2명의 임상 심리학자, 자신이 조각간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용주 선생님, 민가협 총무를 역임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지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송소연 선생님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조각간첩으로 고문을 받고 지금까지도 고문의 후유증을 겪고 계시는 몇 분의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어떤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개인 정신치료를 통해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 모인 분들은 고문 피해자에 대한 경험이 모두 전혀 없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이에 대한 치료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고문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은 모두 생소한 상태였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네이버에 카페를 열어 관련된 자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문

피해의 당사자인 강용주 선생님의 경험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PTSD라 불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고문증후군(Post-torture syndrome)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6명의 치료진들과 민가협 식구들, 강용주 선생님과 송소연 선생님이 모여 공부와 함께 많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단 치료진이 고문 피해자들을 잘 모른다는 것,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기보다는 고문피해자분들의 얘기를 같이 듣는 자리가 필요하고 각자의 치료방식의 균형 잡힌 조정이 필요하다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결국 개인정신치료보다는 집단치료를 통해 이 분들이 호소하시는 정신적 고통의 내용을 같이 듣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배워나가자 라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애초의 기획과는 다르게 집단치료를 어떻게 진행해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짜여지게 됩니다.

저는 종종 의사들 중심으로 이 치료가 진행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치유모임이 지속되는 추동력은 도중에 사라지고, 보이기 위한, 연구를 위한, 열정은 없고 치료 결과만 생각하는 건조한 모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진료만 보던 의사들의 딱 막힌 머리에서 나온 의견이 아니라 열정과 진심을 가진 민가협 식구들과 고문피해자의 고통을 가슴 깊숙이 공감하며 놀라운 영감을 보여주시는 정혜신 선생님, 그 밖의 선생님의 진심이 모여 살아 숨 쉬는 치유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 다행스러웠던 것은 봉은사라는 공간이 주는 무게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모임이 봉은사에서 시작됩니다. 저에게는 봉은사에서 첫 모임은 지울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저의 가슴 깊숙이 들어온 그 놀라운 경험이 아니었다면 슬쩍 발을 들여놓고 있다가 여차하면 발을 뺄 생각을 하고 있던 저를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이와 수험생인 아내 핑계를 대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두 시간 반 동안의 첫 치유모임은 정신과 의사로서 관성과 타성에 젖어있던 저의 가슴을 두들겨 댔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날 것의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정신과 의사에게도 흔한 경험이 아닙니다. 신경증적 갈등은 자주 은폐되어 있기에 그 갈등의 깊은 무의식적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도 지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증적 갈등을 호소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기란 끊임없이 변하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증상 속에 허우적거리며 놀라운 직관이 인도해주지 않는 이상 고차원의 방정식 앞에 망연자실해 있는 느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런 날선 상처를 있는 그대로 표

현하며 도움을 요청받는 경험은 우리 치유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놀라운 흥분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개인마다 십여 년에서 30여년 넘는 세월의 격차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분들은 고문당시의 극도의 공포감과 수치심, 자기 모욕감을 현재까지 일상에서 재경험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인이 세기적인 간첩으로 조작되어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난 뒤에도 형제와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또 사회로부터 배제와 차별의 경험을 반복하면서 하소연할 곳 없는 억울함과 분노를 감내하고 살아야만 했음을 듣게 되었을 때 나의 삶 속에서 이 분들이 경험했을 고통과 분노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반복되는 외상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허우적거리면서도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결기와 강단을 보이시며 때로는 객기로 때로는 유머로 때로는 한 잔의 술로 버티시는 그 분들의 삶 속에서 '강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상처와 고통, 삶 속에서 반복되어온 외상, 지속되는 고문..그럼에도 견디고 버텨내며 치유를 향한 그 분들의 생명력과 건강성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유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오히려 치유 받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집단치료가 끝나고 나면 하루 이틀정도는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수많은 삶의 경험과 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한 마디 한 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듣다보면 마음속에서 수많은 연상과 감정이 떠올라 그 분들과 같이 마음으로 울고 웃게 되는데 그 후유증이란 다름 아닌 다시 현실로 돌아와 일상적인 우리네 삶의 무미건조함과 통속성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외상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허우적거리면서도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결기와 강단을 보이시며 때로는 객기로 때로는 유머로 때로는 한 잔의 술로 버티시는 그 분들의 삶 속에서 '강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료자	세션 참가자	장소	비고
1기 정혜신·배재현	12회 6명	봉은사 운하당	
2기 정혜신·진범수	10회 6명	봉은사 운하당	
3기 진범수·문요한	12회 4명	봉은사 선불당	현재 5월 까지 진행

1기 모임에 참가하셨던 김양기 선생님은 월요일마다 여수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올라오셨습니다. 모두 먼 길을 마다 않고 월요일이면 빠지지 않고 참석해주셨습니다. 2기 모임이 시작되는 날 1기 모임 선생님들께서 참여해주셔서 2기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자신의 치유모임 경험을 얘기해주셨습니다. 2기 모임이 끝나고 저희 봉은사 치유모임팀은 첫 MT를 구상합니다. 1,2기 선생님과 치료진들이 함께 하는 1박 2일의 MT는 정혜신 선생님의 양평 자택에서 열렸습니다. 담소를 나누며 친분을 갖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3기 모임이 시작될 때는 역시 2기 선생님들이 찾아와주셔서 응원해주시고 2기 치유모임의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현재 3기 모임에 참가하고 계신 정삼근 선생님은 군산 옆 개야도라는 섬에 살고 계시는데 이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2박 3일의 일정도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조용환 변호사님과 미국에서 인권의학을 공부하시고 돌아오신 이화영 선생님은 1기부터 지금까지 저희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셔서 저희 치유모임의 길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모임 때는 모두가 내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곤 합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얘기이니까요.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고 하니 좋기는 하지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아해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얘기는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분노와 회

한, 슬픔, 자책감, 모욕감 등을 표현하시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렇게 회기가 진행되면서 건드리기 싫었던, 얘기하기 힘들었던, 공공 숨겨왔던 얘기까지 하나 둘 씩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치료진보다 더 깊게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같은 편이라는 것,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 앞으로 꼭 서로 위로가 되어주자는 것.. 1,2기 선생님들이 모임을 끝내면서 공통적으로 들려주신 얘기였습니다.

치욕스런 고문의 시간과 교도소에서의 수감생활, 그리고 삶 속에서 반복된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수십 년간 고통스러워하며 그런 내적 고통을 견디기 위해 사투를 벌여 오신 분들입니다. 10회기 또는 12회기의 치유모임을 통해서 이 분들의 삶의 고통이 온전히 치유되리라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봉은사 치유모임은 이 분들의 마음속에 작은 촛불 이지만 꺼지지 않는 촛불 하나를 켜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살아갈 이유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이 치유모임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의 진심과 열정만큼은 전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봉은사 치유모임팀이 앞으로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은사 치유모임이 국가 폭력에 의한 상처를 가진 우리네 이웃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

*이 글은 6월26일 UN고문피해자의날 행사에 발표한 글입니다.

추모사

이 글을 삼가 김대중전대통령의 영전에 드립니다

임기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병세가 위독하여, 우리 민가협 임마들은 연세병원 예배실에서 쾌유소원의 예배를 드리며 병환을 물리치고 일어나시기를 정성껏 빌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서거하셨다고 들었을 때는, 태산이 무너지는 아픔에 장차 이 나라 처지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25년전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힌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내 자식을 이해하고 역성들어주는 인사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협위원장 김대중 선생님은 수호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용공좌경에 빨갱이 운동권으로 체포되어 공안기관에서 혹독한 고문과 매질로서 날조된 조서를 꾸미고, 검찰역시 그대로 공소장을 만들어 재판에 회부할 때, 우리 아들 딸들은 실형을 받고 옥살이 하는 양심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1600명이 되는 양심수는 구치소 교도소마다 넘쳐나고 자식들 고통에 찬 비명소리는 어머니들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밖에 있는 가족들은 자식이 잘못될까봐 목숨바쳐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농성투쟁으로 지낼 때, 각계인사들을 찾다니면서 필사적으로 석방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김대중 선생님의 장한 자식을 두었다는 말 한마디가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 졸이던 어머니들의 마음을 당당하게 활짝 펴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남의 일 같이 여기지 않고 힘써 주셨습니다.

80년도 민주화운동에 선봉에 서서 우리를 이끄신 김전 대통령은 민가협 초기 그저 평범한 어머니로 살림을 살다 나온 어머니들이 차차 깨우쳐 단결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가협 역사는 김 전 대통령과 이회호 여사의 정성이 아우러진 파란 만장의 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고비 끝에 대통령이 된 후에는 당신의 사형을 집행하려던 전?노 군부대통령을 조속히 사면하였고 나아가 98년부터는 장기수 분들을 속속 석방하셨습니다. 이분들은 국사범이다, 남파간첩이다 하여 세상과 단절 시킨 비전향 장기수로, 긴 세월의 구석에서 석방을 이루었으니 국민을 놀라게하고 우리 민가협 엄마들을 크게 고무 시켰습니다. 2000년도 9월에는 북녘에 2차 송환이 있었고, 한 달 반 지나서 평양에 가게 된 저는, 건강한 장기수 선생님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석방 이후 송환 된 장기수 선생님들을 평양에서 다시 만나니 남북의 평화로운 협력의 시대가 곧 열리는 듯 했습니다. 약법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외치는 엄마들로서는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일입니다.

서거 하시기전 용산참사를 아파하고, 민주화 역행을 걱정하고 질타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겨레를 지켜주시시오. 세계에 자랑스러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겨레를 살피주시고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살기를 지켜두십시오.

많은 국민이 추모하고 애도해 하지만, 민가협을 사랑해주신 크나큰 공은, 만고에 빛나고, 만인이 흠모하는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서 추모하고 애도합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범민련 실무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범민련은 북, 남, 해외 3자가 연대하여 일본의 공동사무국을 두고 활동하는 민간통일 운동 단체이다. 지난 6월 24일 범민련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회합통신, 찬양고무, 잠입탈출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범민련에 대한 갑작스런 압수수색과 연



행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활동가 16명의 집과 사무실과 지역 통일운동단체까지 압수수색이, 6명 체포, 5명에 대해 출석요구서가 발부됐다. 국정원과 검찰 조사기간동안 구속자들은 이례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수감되어 변호인 접견과 가족 동료들의 면회를 차단당했다.

검찰은 범민련의 일상 사업인 공동사무국과의 통신 연락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위반, 범민련의 회의 및 기자회견, 결의대회 등 대외활동은 찬양 고무,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남북의 교류등은 북의 지령을 받기위한 회합이며 지령을 받아 남쪽으로 돌아온 것은 특수잠입, 범민련의 정기간행을 등은 이적표현을 제작 반포 위반이라고 기소했다.

이적단체

범민련은 1988년 남한의 각계인사 1000여명이 한 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발기취지문을 발표하고, 범민족대회에서 남, 북, 해외동포들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 방안과 구체적인 통일실천과제를 논의하고 결성된 민간 통일운동 단체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91년 30여 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95년 2월 25일 정식 결성하였다. 남, 북, 해외가 일본 동경에 공동사무국을 두고 3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연대하는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대법원은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판결 선고 했다. 범민련은 이적단체 판결의 핵심 내용인 범민련 강령을 2001년 일부 개정하여 '낮은 단계의연방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 등으로 변경하였다.

검찰은 여전히 범민련을 북한 노동당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 한다.)가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1990. 11.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계로 중앙조직이 북한인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범민족회의와 각 본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 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 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는 이적단체라 기소하였다.

회합통신 위반

회합통신 위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몇 가지로 분류된다. 범민련 공동사무국과의 업무상 상 필요한 소통으로 팩스, 전화, 이메일을 포함하여 북측 및 해외본부와의 원격회의, 기관지인 '민족의 진로' 제작을 위한 원고 및 사진자료, 각종 기념행사의 축하까지도 회합통신 위반을 적용하였다. 범민련이 북과 남, 해외의 3자 연대 구조인것을 감안했을때 공동사무국과의 연락은 범민련 업무의 기본이지만 공동사무국과의 모든 업무는 회합통신 위반을 적용하였다. 공동사무국의 박용(일본 공동사무국 부총장)씨는 경찰의 주장대로 북한 공작원인지 확인할 길도 없으며 특히 박용씨는 지난 2005년 815민족공동행사 참가자 서울을 방문한 예가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 공작원으로 규정하여 회합통신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편리대로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회합통신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3년 4월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선임되어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실로 전화하여 615대축전 준비, 남북연석회의 55돌 토론회 축하 요청 등의 업무 논의
- 2003년 6월 민족의 진로 게시용 사진 요청
- 2003.10 한통련 결성 30주년 축하 전송
- 2003.11-12 범민련 북측본부, 공동사무국, 해외본부의 신년 축하인사 수신
- 2004.1 2004년 범민련 일상공동정당회의를 연세대 학생회관 북측본부 해외본부와 원격회의 개최
- 2004.2 범민련 남측본부의 중앙위원회축하 격려 문서를 팩스 수신
- 2004.2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에서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한총련,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과 더불어 범민련 남측본부에 발송한 이라크 추가 파병 반대투쟁에 대한 의사표명 문서 수신
- 2004.4 5.1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노동자 대회에 참가할 남북 인사 명단 확인 요청 전화
- 2004.6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연할 결성 10주년 축하 서신,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총회 보고서 및 결정서 팩스 수신
- 2004.7 김일성 사망 10주기 추모대표단 방북불허 방침 비난 담화 문건 팩스 수신 하여 홈페이지 게시
- 2004.7 범민련 남측본부 부산경남연합 10돌 축하 요청 문서 발송
- 2004.8 범청학련 북측본부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 신고 비판 문건 팩스 수신

- 2005.6 한총련의 '신호순, 심미선 3주기 공동추모와 반전 평화 미군 철수 남총련 평안북도 학생위원회 공동투쟁 선포식 제안' 문서 팩스 발송
- 2005.11 범민련 공동사무국, 북측사무국, 일본지역본부등이 작성한 범민련 결성 15돌 축하 문건 팩스 수신
- 2006.4 범민련 북측본부의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총회 결과' 팩스 수신
- 2006.5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의 '남조선의 전체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팩스 수신 하여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팩스로 재송신
- 2006.11 범민련 북측본부, 해외본부, 공동사무국이 작성한 '범민련연합 결성 16돌 기념대회를 축하하는 연대서' 팩스 수신
- 2006.12 '선군정치는 우리 청년들의 운명과 미래를 지켜주는 민족자주정치, 애국애족의 정치' 제하의 문건 팩스수신
- 2008.3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인 윤기진의 구속을 비판하는 범청학련 북측본부의 성명서를 팩스 수신
- 2008.9 범민련 남측본부의 월간 기관지 민족의 진로 9월호 100권 공동사무국에 발송
- 2009.4 북측본부에서 민족의 진로에 기고할 문건 2건 이메일 수신
- 2009.5 '419 정신은 겨레를 부른다' 문건 이메일 수신

회합, 특수 잠입, 탈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각종 실무모임에서 참가하여 북측 실무자와 논의한 내용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한 것이 되었고 금강산 등 행사장소로 간 것은 특수 탈출, 서울로 돌아온 것은 지령을 수수하고 국내로 들어온 특수 잠입이 되었다.

그러나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승인하에 방북하여 실무접촉을 한 것이 방북승인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지라도 이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일 수 있어도 국가보안법 위반 형의는 될 수 없다.

2004.11 금강산에서 열린 '광복 60돌, 615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사업 관련 실무협약'에 참가한 것과 관련한 사무처장 이경원씨의 공소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이규재, 최은아씨의 특수탈출과 잠입도 유사한 맥락으로 적용되었다.)

1) 특수탈출

- 2004. 11. 22. - 23경 오00(범민련 남측본부), 한00(통일연대), 최00(통일연대) 등 36명과 함께 '2004. 11. 23.부터 11. 25.까지 북한 금강산에서 민화합과 광복 60돌, 6.15공

동선연발표 5월 기념사업 관련 실무협의를 하였다.' 고 통 일부에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방북하여 범민련 소속 북한 대남공작원과 회합하여 지령을 하달 받고 범민련 향후 활동을 협의...이경원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

2) 회합

- 이경원은 00와 함께 2004. 11. 24. 24:00경부터 11. 25. 01:20경까지 금강산호텔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사무국장 리창덕, 중앙위원 김지선, 사무과장 김인철 등 북한 대남공작원 4명과 만났다. 남측본부 사무차장과 북측본부 사무국장의 만남으로 북측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합법적인 공간과 이행 단계 확대노력, 615남측위협등에 범민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측은 615남측위의 대중 활동의 한계, 현재 주한미군철수운동등의 동향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북측본부4인과 남측본부 2인이 만난것은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대남공작원과 회합", 북측의 의견을 들은 것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지령을 받고", 남측의 의견은 "정세 동향 보고"가 되었다. 2004.11. 금강산호텔 실무협회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3) 특수 잠입

- 2004. 11. 25.경 북한 통관장이 있는 강원 고성군 장전읍 장전리에서 금강산 관광버스에 탑승하여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가 있는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로 들어온 것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잠입"한것이 되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후 범민련의 미군철수운동, 615공동선언 남측준비위 활동,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은 모두 북측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이 되었다.

찬양·고무·선전·선동

검찰은 2004년부터 범민련의 회의, 기자회견, 게시물등 일상 업무들을 정리하여 찬양·고무·선전·선동으로 기소하였다. 공동의장단회의를 열어 채택한 결의문과 '전쟁 반대, 미군철수' 등의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은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투쟁의 일환인 대남선전

선동 활동을 찬양·고무 이에 동조 한 것으로, 공동사무국을 통해 받은 축하문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이적표현을 제작 반포 위반이라 하는 식이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범민련의 모든 일상업무들은 북한을 찬양고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범민련은 남, 북, 해외 3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연대하는 조직으로 남, 북, 해외 본부가 상호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범민련의 찬양·고무·선전·선동에 해당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2004년

- 2004. 9.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미군강점 59년, 한반도 핵전쟁 주범 통일의 최대 걸림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범민련 결의대회' 개최
- 2004. 12.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통해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하자'는 특별결의문을 채택

2) 2005년

- 2005. 2. 중앙위원 총회 '3대 공조 높이 들고 자주통일원년, 미군철수원년 실현하자' 제목의 결의문채택 및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10주년 기념대회
- 2005.3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 회의의 기초보고서, 결의문 채택 및 홈페이지 게시
- 2005.5 '전쟁반대, 평화실현, 미군철수를 염원하는 남북해외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및 '미군주둔 60년 남북해의 반미사진전 <사필귀정> 전시
- 2005.8.3 경희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3대 공조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
- 2005.9 광화문 KT앞 '미군강점 60년, 미군철수 남북해외공동성명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기자회견

3) 2006년

- 2006.2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 회의의 기초보고 및 결정서 채택, 홈페이지 게시
- 2006.3. 9기 2차 중앙위원총회 결의문 채택
- 2006.3 '침략적 한미합동군사훈련 규탄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2006.6 '615민족통일대추전' 개최 3대 애국운동 결의대회

4) 2007년

- 2007.2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 2007.3. 중앙대에서 열린 10기 1차 중앙위원회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등 북한의 3대 과업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자' 내용의 결의문 채택
- 2007.5.20 광주 금남로에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위한 범민련 결의대회' 개최

5) 2008년

- 2008.4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내용의 기초 보고 및 결정문 채택
- 2008.4. 10기 2차 중앙위원총회 결의문 채택
- 2008.11.30 보신각에서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 개최

6) 2009년

- 2009.1 '지구 시민카페' 사무처 수련회 개최,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관철의 가치들고 이명박 정권과 내외 분열세력의 반동일체성을 짓부셔 나가자!'는 사업방향 논의
- 2009.2 '서해군사총돌 방지, 현안택 내정철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촉구 사국농성' 및 기자회견
- 2009.2 범민련 10차 공동의장단회의 2009년 범민련 활동방안 논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결정서 채택

그 외 문제들


국정원의 범민련 수사와 기소에는 공소사실외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들어났다. 검찰은 범민련 구속자 3인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을 이유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민련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되었음에도 북한 지침을 우리사회에 전달하는 허브역할을 하는 한편 합법적 교류의 장을 이용하여 북측 공작원들을 접촉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였다는 오지의 기자회견을 열어 대대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공동변호인단은 5가지 의문사항을 밝혔다.

1. 2004년부터 통일부, 국정원의 승인하에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민간교류를 해왔는데 수년이 지난 2009년에 구속기소하는 것은 공안정국의 화려한 부활인가.
2. 기소된 범민련 관계자들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위혐은 무엇이고, 회합,통신,잠입,탈출 등으로 인하여 어떤 실질적 위혐이 명백하게 발생하였는지.

3. 국정원과 검찰 전국 규모의 광범위한 수사는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가 아닌가.
4. 서울지검공안부내 내 변호인 접견권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 변호인 접견권이 검찰에 의해 한법적 수사로 전락.
5. 검찰 기자회견등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가 다분히 여론몰이를 통한 '이념적 낙인'을 통하여 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를 공안정국의 도구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수사기록상 중 감청허가서를 보았을 때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감시는 28개월 이상으로 매우 장기간동안 이뤄졌음이 들어났다. 이경원씨의 감청 허가서는 모두 14차례 연장되어 총 28개월간 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비법상 감청 기간은 2개월로 감청의 연장은 1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국정원은 2개월씩 13회 연장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감청을 허가하였다. 이경원씨와 범민련측은 4개월 이후의 감청은 불법감청이라 주장하며 4개월 이후의 감청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감청 중에는 인터넷 사용의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는 패킷 감청(회선감청)이 행해진 것으로 확인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외에 같은 회선을 쓰는 가족과 사무실 동료들의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소사실에는 최은아씨가 인터넷 사용시 여러 닉네임을 사용한 것이 범죄의 은닉 목적이라 하는데 당사자는 인터넷 유저들 사이에서는 닉네임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범민련 사건은 지난 정부시절 합법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남북교류 사업을 두고 2009년 들어 새삼스레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공안정국 조성과 민간 통일운동을 탄압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범위와 인력이 광범위하게 투입되고, 구속자를 외부와 차단한 채, 검찰의 요란한 수사 결과 발표까지 있었지만 공소내용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활동에 대한 것들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구체적인 행위는 없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위헌이다

오 병 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개정 저작권법이 7월 23일 시행되었다.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인터넷은 공포로 들썩였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은 음악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일부 언론은 '저작권 괴담'이 떠돌고 있다고 썼으며, 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는 네티즌들의 오해를 바로잡는다고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도대체 개정 저작권법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 난리인가?

개정 저작권법은 소위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야구에서의 삼진아웃과 같이, 저작권법을 세 번 위반하면 인터넷에서 몰아내겠다(OUT)는 얘기다. 개정 저작권법은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즉, 저작권을 침해하여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 운영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나마 작년에 문광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비하면 많이 완화된 것이다. 입법예고안이 이용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규제 수준을 조금 완화하여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을 통해 발의하였다. 그리고 강승규 의원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다시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되 이메일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게시판 서비스의 정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했다. 원래는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 있는 규정도 있었으나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규제의 강도는 완화되었으되,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하 남아있다.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처벌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인터넷 계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는 '정체성'이며,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을 한다. 계정을 정지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과연 저작권 위반이 이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가? 비유하자면, 반복적으로 주차위반을 했다고, 특정 구역 내에 아예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합당할까? 게시판 서비스에 정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게시판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시물도 있을 수 있다.

과연 일부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킨다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정당한 소통마저 제한이 될 텐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규제라고 할 수 있을까?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이유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사법적인 판단없이 행정기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광부는 'Q&A'에서 개정 저작권법은 '해비업 로더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며,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등은 정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문광부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법안 어디에도 '해비업로더'와 같은 개념은 없다. 기사나 다른 블로거의 글을 퍼다 날라도 저작권 위반이다. 과연 네티즌 중에서 3번 이상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이라는 규정도 모호하다. 다음(Daum) 아고라에는 수많은 '팸' 글이 있고, '다음'은 영리업체이다. 블로그 중에는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광고를 달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음 아고라가 삼진아웃제에 의해 정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만한 근거는 없다.

두 번째 문제는 사법적인 판단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규제 대상을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 및 게시판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문광부(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용자 및 게시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모든 행위는 기본적으로 '표현행위'인데, 이용자의 표현을 사법적인 판단없이 행정기관이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의 '검열'이다. 사실 저작권 위반 여부는 사법부도 판단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했다더라도 적절하게 '인용' 한 것이면 '공정이용'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학술 논문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타인의 동영상을 그대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권리자가 허락한 경우이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인 경우 역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지난 5월 프랑스 상하원은 '저작권 위반 삼진아웃제'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문광부 관계자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광부 관계자가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이유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사법적인 판단없이 행정기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부적인 규제 내용은 다르지만, 이용자 계정이나 게시판을 통한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 기본권이며, 한국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역시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 한국의 개정 저작권법 역시 위헌이다!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법에 의한 침해 사례가 나타나면,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성한 어머니



한겨레신문 2009년 5월5일(화) 3면

Q 이 날 사진에 어머니에 뒷모습이 나왔어요. 어머니 이날이 언제지 기억하세요?
5월4일 오전11시쯤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기념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기자회견 하던 활동가 6명이 영등포경찰서로 강제 연행되서, 영등포경찰서로 면회하러 간 거네…….

Q 어머니는 왜 뒷모습이 나온거예요?
기자회견을 같이하다가 활동가들이 연행되니까 어머니들이 모두 영등포경찰서로 항의방문을 갔어. 부라부라 나중에 도착한사람들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정문을 잠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구…….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경찰서문을 안 열어 줘…….참 나.

Q 그래서 면회는 하셨어요?
한참 기다리다가 면회 겨우 했지…….여섯 명 한꺼번에 면회 하겠다 해도 한명씩 면회시켜주고, 한참 애를 먹이데…….

Q 여섯 명을 왜 연행한 거죠?
경찰은 기자회견할 때 피켓 들고, 구호 외쳐서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연행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92년부터 민가협에 나왔지만, 기자회견 하는데 잡아가는 건 처음 봤지. 집회나 시위도 아닌데…….처음 봤어.

Q 기자회견 당시 상황은 어땠는데요?
아마 기자회견할 때 그놈들이 미리 연행대상자를 지정한 것 같아, 순식간에 한꺼번에 잡아가더라구.

다른 때와는 달리 여경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여경들이 어머니들은 차친다구 우리를 뺨 돌려싸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나머지 젊은 활동가들을 잡아갔어.

Q 92년부터 2009년 지금까지 민가협 활동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집 아저씨도 그런 말 하는데, 국가보안법이란 게 죽새 같아서, 한번 걸리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국가가 편할 때 연행해 갈 수 있더라구. 그런 없어져야되.



김성한 어머니는 92년 9월부터 민가협과 인연을 맺었다. 아들(심상덕, 고려대 졸업)이 학생운동을 하긴 했지만 졸업한지 한참 지나 92년 민애전 사건으로 연행되었다. 외출했다 집으로 들어오는 아들을 따라 시경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영장이나 신분증

제시도 없이 집안으로 따라 들어와서는 연행해 갔다. 그때는 영장을 보자거나 신분증을 보자고 할 줄도 몰랐다. 수소문 끝에 남산 안기부로 면회를 갔다가 안기부 입구에서 민가협 어머니들을 처음 만나 곧바로 민가협 회원이 되었다. 민가협어머니들에게 놀란 마음을 위로받기도하고 함께 재판을 방청하기도 했다. 지금은 인권이 짓밟히는 어느 곳이든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눈다. ☺

“대학생들이 마구 연행되고 있습니다”

한 아 름_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

저는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 한아름입니다. 며칠 전 홍익대학교 졸업생인 이하얀 선배가 연행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막무가내로 연행되었습니다. 연행되어 간곳은 예전에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그 대공본실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을제시하지 않고 소환장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수배생활을 한것도 아니고 경찰이 아무한테나 사람을 잡아가고 무자비하게 외부와의 연락을 끊어 버린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질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호랑이가 담배 피는 옛날이야기 인 줄 알았습니다.



어제는 세 명의 대학생이 연행되었습니다. 2학기가 되기 전에 대선공약대로 등록금 인하 방안을 내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었고 한국대학생연합 의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끝나고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대학생들의 평범한 절박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한대련 의장의 연행이었습니다.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대학생들의 평범한 당연하고 또 절박한 요구에 폭력으로 대답하는 정부가 21세기 민주주의사회에 어울리거나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의장이 연행되고 난후에도 학생들은 남아 지남가는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었습니다. 한 참 유인물을 나눠주는데 경찰 두 명이 오더니 “너희들 이리 왜 뭐하는 사람들이야? 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냐?”고 물었습니다.

하지 말라던 중대하고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거 수갑을 채울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하다”며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학생 일행을 따라 왔습니다. 결국 여경이 오고 더 많은 경찰들이 오자 우리 일행을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광화문 사거리에 있던 시민들이라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며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이 무슨 죄이고 설사 죄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우고 옷을 벗겨가며 연행하는 것이 가당하냐고 체포영장은 어디에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의 대답은 어이없게도 “요즘 체포영장같은 거 필요 없다”였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체포영장 같은 거 필요 없이 아무나 잡아갈 수 있습니다. 길가에 경찰이 너 여기 왜 있느냐고 물었을 때 경찰이 원하지 않는 대답을 했을 경우 아무렇게나 수갑을 채

워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수준이, 경찰의 한계는 그 정도입니다. 경찰이라는 일방한 공권력으로 길 가의 수많은 시민들 앞에서 허리춤을 잡아 올리고, 수갑을 채워 겁을 주고 연행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저는 어제 그 상황이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 것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좌파, 빨갱이, 나쁜 사람들이 되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명이 잡혀가지만 내일은 모든 국민들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반정부 성향이라느니, 왜 말을 안 듣느냐 느니,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느니 가지가지 욕설과 폭력을 동원해 우리들을 탄압할 것입니다.

여기 지나가시는 많은 시민여러분, 부디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뜻을 알거나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해가며 자신의 권력이 10년 100년이 이어질 것처럼 여기는 이명박 정부에게 이제는 민주주의를 살리라고 당신 같은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말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학생들은 공안 탄압을 이겨내고 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쌍용자동차 앞, 노동자만 피해를 입는 모순의 현장



이 영_상업의장

한평생 오직 한길 조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온 겨레의 소원 평화 통일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들 가슴속 영원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남겨진 일들은 살아있는 이들에게 맡기시고 부디 영면하소서.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선지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소리며 머슴이 되어 국민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겠다고 했던 달콤한 약속은 언제 그랬냐는 듯 독주와 폭압, 오기로 국민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면서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할 공권력을 선량한 국민들을 짓밟는데 쓰고 있다.

쌍용차 해고에 같이 살자는 노동자들

의 절박한 외침을 전쟁을 방불케하는 진압으로 답하는 경찰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무장 경찰들이 농성장에 진입 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어머니들은 전철을 타고 평택역에 내려 쌍용차 정문앞으로 허겁지겁 출퇴근을 했다. 공장앞에는 모자 안경 마스크를 한 젊은 용역 직원들은 손에 손에 몽둥이나 쇠파이프를 들은 채로 민가협 엄마들에게 야유했다. 타고간 봉고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위협하고 “용돈이 필요하면 자식한테 받아쓰지 돈 받고 이런곳에 나왔냐”며 막무가내 반말을 해댔다. 많은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실려가도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용역꾼들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사람들을 제압한다.


77일 동안 물과 음식, 전기를 끄고 의약품과 의료진의 출입마저 금지시킨 것은 살인행위이다. 이걸 나라도 아니다.



스티로폼이 녹아내리는 최루액을 뿌려 대고 5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테이저건을 아무 거리낌 없이 쏘아대고 고무총을 쏘아대고 쓰러져 있는 노동자에게 또다시 곤봉을 휘둘러대고 방패로 짚고 군화발로 짓밟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정당한 법 집행이란 말인가. 또 공장 밖에서는 울부짖는 농성자 가족들과 시민사회, 야당의원들의 농성 천막을 부수고 기자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광기를 보고 치를 떨었다. 77일의 긴 파업기간동안 고통스러움을 못 이긴 노동자가 6명이나 자살하고 노동자의 젊은 아내가 4살과 8개월 된 어린 자녀를 두고 경찰의 협박에 못 견뎌 자살해버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참화를 노사 합의로 막아냈다는 것에 모든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런데 농성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사측의 협상결과와는 무관하게 경찰이 65명을 무더기 구속을 해버렸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경찰의 속셈을 모른 바는 아니었지만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가슴 졸이며 남편의 농성을 바라보던 부인들이 다시 남편없는 가정을 지키며 옥바라지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기다리던 아이들 역시 또 다시 긴 기다림을 되풀이해야 할 테니 더 없이 슬픈일이다. 회사가 망했는데 경영자의 책임지는 모습은 없이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만이 피해를 입는 것은 모순이다.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책임을 지는 세상이 하루 빨리 왔으면...

여러 이유로 민주가족이 늦게 발행된 점, 민가협을 사랑해주는 회원, 후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인사드립니다. 

예수의 걸음을 따라

참여정부때 국방부는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발표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 국민여론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돌연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 도입을 기다리던 많은 수의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이 기대를 잃고 속속 수감되고 있으며, 더불어 한동안 볼 수 없었던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이 다시 시작되었다. 지난 7월 7일 기독교회관에서 하동기씨의 양심에따른병역거부 기자회견이 있었다.

선언

어떠한 전쟁도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진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혹은 평화를 얻기 위한 전쟁을 주장하지만 어떠한 전쟁도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없으며, 어떠한 전쟁도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전쟁에 반대합니다.

만남

2005년에 인권위원회에서 국방부와 국회에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라고 권고했을 때, 가장 크게 반발한 단체 중 하나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개신교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이 단체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 단체는 적을 상정하고 그들을 찌르고 쓰는 훈련을 통해 이웃 사랑이 아닌 이웃 파괴를 자행하는 군대에 갈 수 없다는 사람들의 신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이 이야기가 예수의 삶을 따르노라고 목이 터져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주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실

그때부터 시작된 병역거부에 대한 고민은 2006년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서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던 평택에 갔을 때 체계도 현실화되었습니다. 고통 받는 현실 속에 놓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으며 찾았던 평택의 땅에서 만난 것은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 그리고 군사력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군인들과 경찰들의 눈빛은 분노와 증오의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나를 분노의 눈길로 쳐다보던 몇몇 경찰들이 꼭 내 친구인 것 같았고, 내 선후배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내뿜는 분노의 기운은 결코 그들의 성품에서 기인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라는 이름, 혹은 권력이라는 이름은 그들을 강제로 자신들의 세력에 편입시켜 그들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그 폭력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스무 살 남짓의 청년들을 일선에 내세우고 그들의 뒤에 선 간부급의 사람은 "X소대, 너희 동료가 맞고 있다.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건

가!"라며 폭력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에게 맞선 사람들은 총칼도 들고 있지 않은, 그저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주민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일 뿐인데도 이들을 때려잡지 못해 안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흥분한 전경들은 돌을 던져 창문을 켜고, 그 돌은 제 머리 바로 위에 날아와 벽을 때렸습니다. 누군가는 방패에 맞아서, 누군가는 돌에 맞아서, 누군가는 곤봉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내 친구와 같은, 내 선후배와 같은 전경들도 흥분한 시위대의 폭력에 피를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작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폭력의 사용을 강제하는 국가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백

교회라는 공간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게 된 초등학교 4학년 시절부터 저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더욱 열심히 출석했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으며,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 수 있기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신학'을 공부하는 곳에 입학했고, 신학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만난 예수님께서 세계 항상 하셨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저 곁에 다가가 사랑한다고 속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헐벗고 고통 받는 이웃에게 다가가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누구도 이러한 아픔과 고통에 내몰리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어나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더욱 이 말씀이 와 닿았던 것은 내게 말씀하신 '이웃'이라는 존재가 내가 알고 있는, 혹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고 불리는 존재들까지 포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군대에서는 그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분쟁과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적으로 상정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는 방법과 효과적으로 그들을 타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제가 신앙하는 예수님은 제가 그런 자리에 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국가와 권력의 폭력에 휩쓸려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언정 묵묵히 자신의 길을,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믿음

인생의 한 걸음이라도 예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서, 내게 보여주셨던 평화와 사랑의 걸음을 걷는 것이야말로 저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 언제나 예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

2009년 7월 7일 하 동 기



미결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전화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A구치소장에게는 수형자에 비해 미결수용자에게 보다 엄격히 적용되는 전화 통화 제한 조치의 시정을, △A구치소의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는 미결 수용자에 대한 전화통화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 B(남, 34세)는 “미결수로 A구치소에 수용 중 모친이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3회에 걸쳐 구치소 측에 전화통화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는 등 외부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2009. 3. 1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구치소는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월 1회로 제한하고 있고, 진정인은 2009. 2. 동생과의 통화에서 모친의 병환을 확인한 후 병세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통화를 요청했으나 구치소 방침에 따라 한 달이 지난 2009. 3.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0조에 따라, 월 3회 ~ 5회의 전화사용이 가능하나, 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의 전화 사용 횟수는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불합리하게 제한될 소지가 있다. 「헌법」제18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4조는 수용자의 전화통화권을 규정하여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인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제92조와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원칙 19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제25조에서 수용자가 교정 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제90조에서 수형자에 대한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결수용자는 「헌법」제27조 및 「법률」제7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러한 추정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고 수형자에 비하여 더욱 두텁게 제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전화통화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수형자에 비해 오히려 엄격하게 전화 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제18조 및 「법률」제4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전화통화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 규정 개선 등을 권고했다.

부당한 계구사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A교도소장에게 △수용자들에게 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구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지도 감독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구를 사용하는 관계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수용자인 최모씨는 “2008. 2.

보건료과에서 진료받고 나오면서 혼잣말로 몇 마디 욕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 수용된 후, 3일간 수갑을 채워 손목에 상처가 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2008.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은 “계구는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계구의 사용으로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2008. 2. 보건료과에서 욕을 하여 조사 수용되었고, 조사 수용된 후에도 계속 소란을 피워 같은 날 수갑이 채워졌다가 약 3일 후 수갑이 해제되었으며, 수갑사용으로 인한 상처가 15일이 지난 이후에도 확인이 될 정도의 심했으나 이를 치료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계구를 사용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불필요한 육체적인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계구를 해제하고 나서 15일이 지난 이후에도 진정인의 손목에 상처가 그대로 있었음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교도관들의 행위는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A교도소장에게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서울시, 집회에 참가하는 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중단

서울시는 지난 8월5일 각 구청을 통해 활동보조 중계기관에 ‘불법 집단농성 등에 참여하는 자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기하라’는 공문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노숙농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 3명의 서울시 활동보조 추가분 지급을 유보하였다. 그 이유는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에 산으로 주는 추가분인데 서울시정에 협조하지 않는 농성당사자로 발견된 이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불법 집단농성 참여자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복지법상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생활 등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서울시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들의 손발을 묶어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의 목적이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듯이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혹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집회에 참가하는 것 역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자 사회활동이므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 1일 ● '민족21 100호 기념식 및 후원의 밤' 18시30분(삼성동 웨딩의 전당 2층)
 - 인권연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9시)
- 2일 ● 761회 목요일집회 (2시 종로 탑골공원)
 - 실천연대 강진구 씨 항소 재판. 11시(서울고법 서관 508호)
- 3일 ● 7월 3일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광란적인 정치보복을 중단하라' 전교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민생민주국민회의-(2시 서초동법원앞)
- 6일 ● 안경환 위원장 사퇴관련 인권단체 기자회견 '소통없는 이명박정권, 국가인권위 길들이기? -위원장 사퇴는 인권위 탄압결과-' (가칭)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건국대 대표자들의 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건대총학, 대학생공안탄압 대책위, 대학생행동연대-(12시 홍제동 대공본실 앞)
- 7일 ● 유엔인권이사회 사회권 NGO보고서 작성회의(11시, 미디어엑트)
 - 국가별인권상황정기보고서(UPR) 가이드라인 작성회의(3시, 국가인권위원회)
- 9일 ● 762회 목요일집회(2시 종로 탑골공원)
- 10일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49제 참석(봉화마을)
- 11일 ● 용산참사 문화제 참석(4시 서울광장)
- 11일 ● '민주회복-민생살리기' 서울 범국민대회(2차 대회)

- 13일 ● 하동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전쟁없는세상-11시(종로5가, 기독교회관)
- 13일 ● 천성관 검찰총장내정자 철회 기자회견 -진보연대-(11시30분여의도 국민은행 앞)
- 14일 ● 118차 반미연대집회 '제재와 압박 중단하고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서라!' -평통사-(2시 광화문 KT앞)
 -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서울시 규탄대회' (2시 서울시청별관 앞)-민권사회연대/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 15일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가이드라인, 인선절차' 토론회-인권단체연석회의-(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104호)
- 15일 ● '언론악법 저지 촛불문화제 7.13-7.16' -미디어행동-(7시 여의도국민은행 앞)
- 16일 ● 강순정 선생님 국가보안법 위반 선고 공판
 - <19일, 민주회복·민생살리기 제2차 범국민대회> 선포/야당, 시민단체 기자회견-민생민주 국민회의-(11시 시청광장)
 - 763회 목요일집회 (2시 종로 탑골공원)
 - '7.16헌법의 위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국선언자 대회'-민주주의를 위한시민네트워크-(오후 7~9시 조계사 경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17일 ●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공동기자회견(오전 11시 민변)

- 국가인권위원장 사태 촉구 기자회견 -인권단체연석회의-(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범민련 이규재의장님 및 이경원, 최은아 구속자 재판(2시 서울지방법원 424호)
- 범민련 후원 의 밤(오후2~12시) 남영역 1번출구, 슝 호프
- 국정원대응 '양지모임' 회의(11시, 민가협)
- 서울구치소 서신수발신 금지 대책회의(5시, 민가협)
- 19일 ● < 민주회복·민생살리기 제2차 범국민대회> -민생민주국민회의-
- 20일 ● 언론악법 상정 반대 기자회견 -진보연대- (10시 국회본청 계단)
 -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저지' 기자회견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용산참사 반년' 기자회견 -범국민대회-(2시 한남동 순천향병원)
 - '용산참사 반년' 위령제 -범국민대회-(3시 한남동 순천향병원)
 - 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회의, (3시, 국가인권위원회)
- 21일 ● '언론악법, 비정규악법 저지100시간 비상 국민행동' 돌입 기자회견 -민생민주국민회의-(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언론악법, 비정규악법 저지100시간 비상 국민행동' 농성(여의도 국민은행 앞 촛불농성)

- 22일 ● '언론악법, 비정규악법, MB악법저지! 쌍용차 폭력진압 규탄 총 고용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3시 여의도 산업은행)
 - '미디어 법 강행처리 규탄' 촛불 문화제(여의도 산업은행앞)
 - 국제인권네트워크 회의(4시, 국가인권위원회)
- 23일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시국원로선언'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 '한나라당 의회 폭거 규탄 비상시국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2시 프란치스코 회관)
 - '한나라당 의회 폭거 규탄' 기자회견 -민생민주국민회의-(4시 프란치스코 회관)
 - 진보연대 현안회의 참석(임기란 고문)
- 24일 ● [쌍용자동차 파업현장에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전국여성연대-(2시 경찰청앞)
 - '언론악법, 비정규악법 저지100시간 비상 국민행동' 농성
 -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언 국민문화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노조, 시민네트즌-(오후 7시 서울시청앞 광장)
- 25일 ●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 -야4당, 민생민주국민회의, 미디어행동,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 (토요일 오후7시 서울역)

26일 ●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하마당 '전쟁없는 평화세상' 미군없는 통일세상' -평통사- (일요일 2시 원불교회관)

● 반미집회-평통사-(5시30분광화문미대사관 앞)

27일 ●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체포 규탄 기자회견 -국민회의- (2시 영등포 경찰서 앞)

● 양심수후원회 임미영사무국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 집회 현장에서 연행. 불구속기소수원중부경찰서 면회)

28일 ●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면회(영등포 경찰서)

29일 ● 쌍용자동차 평화해결 및 생필품 전달 기자회견 -민생민주국민회의- (오후2시~ 7시 쌍용자동차 정문 앞)

30일 ●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8.15 사면 규탄 및 양심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 -민가협, 구속노동자후원회-(11시 청운동사무소 앞)

30일 ● 764회 목요일집회(2시 종로 탑골공원)

31일 ● 임신7주차 직장인 '김은혜씨 국가보안법 적용, 연행 규탄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오전10시 서초동 법원 앞)

● 92차 평화군축 집회 -평통사- (낮1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2009년 8월

3일 ● '광화문 광장에 표현의 자유를!' -문화연대-(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4일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 촛불집회 참가(7시 평택역 앞)

5일 ● '쌍용자동차 살인진압, 사측 테러 규탄' -모든활동가-(2시 평택역 앞)

● 일심회 사건 가족모임(7시, 들풀)

6일 ● '쌍용자동차 살인진압, 사측 테러 규탄' -금속연맹-(12시 평택역 앞-쌍용자동차 공장 앞)

7일 ● '쌍용자동차 파업 대량 사법처리'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국민회의-(2시 경찰청 앞)

7일 ● '용산참사 해결 및 철거민 생존권 보장 대회' -용산범대위-(3시 서우시청 서소문 별관)

10일 ● 815 대표자회의(1시 진보연대)

● 815 행사 기자회견(2시 진보연대)

● 진보연대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 회의(3시 향린교회)

11일 ● 김대중 전 대통령 패유를 기원하는 기도회 참석(4시 연대 세브란스병원 6층 예배실)

12일 ● 2009 만해축전 -만해대상 이소선어머니 유기협-(5시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

13일 ●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김정동 국가보안법 재판(10시 10분 의정부법원)

● 765회 목요일집회(2시 종로 탑골공원)

● 국제인권네트워크(10시, 민가협)

15일 ● 일본군국주의반대! 전쟁반대! 평화수호! -통일로 가는 여성대회-(2시 일본대사관 옆 국제청 앞)

● '대북압박 중단 북미대화 재개 UFG 중단 촉구 8·15 반전평화 자주통일 결의대회' -평통사-(2시 광화문 미대사관 앞)

●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주파괴민생유린, 4대강 죽이기, 남북관계 파탄 -야 4당, 민생민주국민회의-(4시 서울광장)

● 광복 64돌 8.15 평화통일문화제-광복 64돌 8.15대회 준비위원회-(7시 홍익대학교)

18일 ●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4시 신촌세브란스)

19일 ●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11시 신촌세브란스~4시 서울광장)

● '한겨레21' 민가협어머니들 인터뷰 -김대중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4시 서울광장)

20일 ● 766회 목요일집회(2시 종로 탑골공원)

● 김대중 전 대통령 서울광장 분향소 방문

● 국제인권네트워크 회의(10시 참여연대)

21일 ●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예배(국회)

●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 -시민추모위원회-(19시 30분 서울광장)

· 전양심수 평화려님께서 직접 농사지은 무농약 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평택 쌍용자동차 앞 농성가는 길에 살아서 간식으로 챙겨갔습니다. 아휴 그런데~ 그날이 7월29일, 7월에 막바지 휴가기간이라, 여름휴가 가는 행렬로 평택가는 길이 어찌나 막히던지, 점심먹을 시간도 없고 가는 길에서 시간 다 까먹고... 그나마 감자덕분에 얼마나 요긴하게 때꺼리를 해결했는지.....정화려선생님 감사합니다.

· 범민련 양심수 후원추진에 참가에 대한 감사 인사로 범민련에서 멜론을 보내왔습니다. 유난히 덥던날 어머니들과 맛나게 나눠먹었습니다.

· 8월28일(금요일) 10시 서울중앙지법 303호에서는, 27년만에 송씨일가 조각간첩단사건이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여러 만감이 교차했죠, 다들 눈시울이 붉어졌었습니다. 송씨일가 중 막내이신 송기수 선생님께서, 3월에는 이정이어머니과 조순덕 어머니 영치금을, 이번에는 여주구치소에 수감중인 이길준의경과 용산철거반대 농성으로 구속된 이충현씨에게 영치금을 보내달라고 맡기셨습니다. 선생님들의 마음까지도 잘 전달하겠습니다.

· 조순선어머니께서 오랜만에 목요일집회에 참가하셨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강용주(구미유학생간첩사건)씨가 병원을 개원했다며 함께 싸워온 어머니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따끈따끈하고 맛난 시루떡을 나눠주었습니다. 건강한 조순선 어머니모습을 오랜만에 보니 반가웠습니다. 강용주씨의 변장을 기원합니다.

· 만해대상 실천상을 수상하신 이소선어머니께서 상의 뜻을 민주화운동을 함께 해온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나누다며 상금의 일부를 민가협 후원금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이 어머니가 김대중 대통령 추모 집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건강이 좋지않아 병원에 자주 다니신답니다. 이정이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7월 강동혁2만원 강시원1만원 강옥녀5만원 강용주2만원 강인영1만원 고대립1만원 고애순1만원 권오현2만원 권처총1만원 권처총1만원 김경철3만원 김경선1만원 김경순1만원 김경환2만원 김경호2만원 김민1만원 김명규2만원 김 민1만원 김병철1만원 김 석1만원 김연옥1만원 김영주1만원 김영철3만원 김옥희2만원 김용수1만원 김재현5만원 김재관2만원 김정은1만원 김준욱1만원 김진한1만원 김진희1만원 김충태3만원 김현주1만원 김효중1만원 니명주1만원 나백주1만원 남 현2만원 노우정1만원 대현중3만원 대현중3만원 문행주1만원 박경수1만원 박미준2만원 박상은1만원 박은혜1만원 박창희1만원 박현석1만원 박현숙10만원 배숙희1만원 백미경1만원 부미경5만원 서경순1만원 서미애1만원 설창일1만원 손창호1만원 송복희1만원 신미숙10만원 심경희1만원 안상준1만원 양승일1만원 양희찬1만원 영창근1만원 오지은1만원 오창규5천원 우문영1만원 유기섭1만원 유민호1만원 유성호1만원 유영환3만원 유현미1만원 유혜정2만원 윤달일1만원 윤리원1만원 윤정식1만원 윤현석1만원 은종복1만원 이 영2만원 이강택3만원 이교영1만원 이귀일1만원 이명수10만원 이민희1만원 이상화2만원 이선재2만원 이송호1만원 이원구1만원 이재승1만원 이재혁5만원 이재정1만원 이정일1만원 이정태1만원 이종화2만원 이철주3만원 이현애1만원 이혜정2만원 이혜정1만원 이호영1만원 임기란2만원 임도규1만원 임종찬1만원 정민영1만원 정오준1만원 정대하1만원 정순녀2만원 정종혁2만원 조성우1만원 조순덕2만원 조문미3만원 조현수1만원 주관철5천원 주재현1만원 진범수2만원 진정화1만원 진 현1만원 차보람1만원 채은아2만원 최병우2만원 최원국3만원 최재혁1만원 최정학1만원 하효열3만원 한윤진5천원 한희호5천원 홍진경2만원 황인문5천원 황인욱1만원

8월 강경태5천원 강시원1만원 강용주2만원 강인영1만원 고대립1만원 고애순1만원 권오현2만원 권처총1만원 김경필3만원 김경선1만원 김경순1만원 김경환2만원 김명규2만원 김 민1만원 김병철1만원 김 석1만원 김성욱1만원 김성환1만원 김영주1만원 김영철3만원 김옥희2만원 김용수1만원 김재현5천원 김정은1만원 김중욱1만원 김진한1만원 김진희1만원 김충태3만원 김현주1만원 김효중1만원 니명주1만원 나백주1만원 남중우2만원 남 현2만원 노우정1만원 대현중3만원 대현중3만원 문행주1만원 박경수1만원 박상은1만원 박은혜1만원 박경순1만원 박정호1만원 박해전10만원 박현석1만원 박현주1만원 배숙희1만원 백현석1만원 부미경5천원 서경순1만원 설창일1만원 손창호1만원 송복희1만원 신미숙10만원 심경희1만원 안상준1만원 양승일1만원 양희찬1만원 오지은1만원 오창규5천원 우문영1만원 유기섭1만원 유민호1만원 유성호1만원 유영환3만원 유현미1만원 유혜정2만원 윤달일1만원 윤리원1만원 윤정식1만원 은종복1만원 이 영2만원 이강택3만원 이교영1만원 이귀일1만원 이명수10만원 이상화2만원 이선재2만원 이송호1만원 이원구1만원 이재승1만원 이재정1만원 이재혁5만원 이정1만원 이정일1만원 이정태1만원 이종화2만원 이철규2만원 이혜정2만원 이혜정1만원 이호영1만원 임기란2만원 임선순1만원 임종진1만원 정민영1만원 정오준1만원 정대하1만원 정명수1만원 정순녀2만원 정종혁2만원 조문미3만원 조현수1만원 주관철1만원 주재현1만원 진범수2만원 진정화2만원 진 현1만원 차보람1만원 채은아2만원 최병우1만원 최원국3만원 최재혁1만원 최정학1만원 하효열3천원 한윤진5천원 한희호5천원 황재찬1만원 홍진경2만원 황인욱1만원

CMS
은행에 가시는 버거로움 없이 거래은행, 후원액을 알려주시면 매월 자동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민가협으로 문의주세요 ☎763-2606

후원금 보내주실 곳
우리은행 443-125539-02-001 임기란
국민은행 006-21-1056-995 임기란
농 협 386-02-051894 박성희
신한은행 961-04-161555 박성희